

# 전노민 “제일 나쁜 놈이 어딴어요? 다 똑같지”



“아니, 제가 신유신(이태곤 분) 보다는 덜 나쁜 놈 아닙니까? 왜 다 저를 제일 욕하는 거죠?”

TV조선 주말극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하 ‘결사곡’) 시리즈에서 50대에 조강지처 이시은(전수경)을 버리고 열 살 연하의 남가빈(임혜영)을 만나 뻘뻘하게 외도를 저지르는 박해륜 역으로 공분을 산 배우 전노민(54·사진)은 허허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결사곡’의 남주인공 셋은 모두 바람이 났지만, 최후까지 철저히 숨기려 노력했던 신유신, 판사현(성훈)과 달리

민은 “박해륜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남가빈과 서동마, 두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다. 좋다는 사람끼리 만났으면”이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 진한 멜로극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선한 외모의 전노민은 ‘육룡이 나르샤’ (2015-2016)에서 악역 홍인방으로 크게 히트한 뒤 악역 제이가 쏟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역 연기 특유의 쾌감을 느끼기도 어려워 더 힘들었다는 게 전노민의 설명이다.

“악역 하면서 한 번씩 소리도 지르고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 때가 있는데, 박해륜은 안전하게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릴 일은 없고 쌓일 일만 있지. (웃음) 사실 박해륜은 저도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도 아니고’라는 말을 어떻게 말한데 할 수 있어요. 아내한테 첫 마디도 ‘이만 사는 거 어때’라니.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안 해보려 했지만, 결국 어설피게 하기보단 확실하게 욕 먹자는 생각으로 했죠.”

##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서 박해륜 역 맡아

### “악역 맡아 식당가면 서비스도 안나와... 허허~”

### 결사곡은 남녀노소·국적 불문 통하는 이야기

### 예능·시사프로그램 진행 기회되면 해보고 싶어

박해륜은 시즌1 초반부터 아내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굴며 시청자의 분노에 더욱 부채질했다.

최근 중구 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노민은 “어딜 가도 ‘욕은 나오지만 잘 보고 있다’고 해 드라마의 인기와 캐릭터가 미움받는 것을 함께 체감한다”며 “악역을 해서 그런지 광고도 안 들어오고, 식당에 가도 서비스도 안 나온다”고 또 한 번 웃었다.

‘결사곡’ 시즌2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남가빈이 서동마(부배)와 재결합할 것 같은 분위기 속 박해륜은 즐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노

민은 “박해륜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남가빈과 서동마, 두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다. 좋다는 사람끼리 만났으면”이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향기는 어디 있다가도 찾아와서 계속 ‘아빠, 대사 맞춰요’ 하더라고요. 한 번 만나면 다섯 시간 연습하니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찾아오니까 얼마나 예쁘던지요. 25쪽짜리 대본을 한 번에 연기하는 것 보고 다 같이 손뼉을 쳤죠. 정말 딸 같아요, 이제는. 수경 씨와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우리 집’이 분위기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물론 박해륜이 천안공노할 짓을 했지만, 전노민은 아내 역의 전수경에게 따귀 맞고 딸뻘인 향기 역의 전해원에게도 수없이 비수를 맞으며 고초를 치렀다. 하지만 전노민은 두 사람과의 호흡만큼은 최상이었다고 자랑했다.

“특히 향기는 어디 있다가도 찾아와서 계속 ‘아빠, 대사 맞춰요’ 하더라고요. 한 번 만나면 다섯 시간 연습하니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찾아오니까 얼마나 예쁘던지요. 25쪽짜리 대본을 한 번에 연기하는 것 보고 다 같이 손뼉을 쳤죠. 정말 딸 같아요, 이제는. 수경 씨와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우리 집’이 분위기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자부해요. 물론 두 사람이 화낼 땐 장난 아니었지만...”

도대체 박해륜은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물었다. 이에 전노민은 “사실 누가 제일 나쁘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웃으며 “물론 박해륜은 신유신의 외도를 이르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지질하다”고 시청자 모드로 답했다.

또 “시즌1를 찍기 전 송원(이민영), 아미(송지인), 남가빈 세 ‘내연녀’와 한자리에 있었을 때 제작진이 농담처럼 누가 가장 마음에 드냐고 물어서 큰 생각 없이 ‘그녀’를 골랐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됐다. 다시 질문을 받으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뒷이야기를 들려주며 깔깔 웃었다.

전노민은 ‘결사곡’이 TV조선 분방송으로는 물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에서도 사랑받는 데 대해서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 통하는 이야기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밖보다 안 생활이 더 궁금해져서 더 많이들 보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외국계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공익광고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31세에 연기에 입문해 벌써 중견 배우가 된 전노민은 안방극장과 스크린, 무대를 넘나들며 작품마다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연극 연출 등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떤 장르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섭외가 왔을 때 ‘아, 이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연기를 하게 된다”며 “하반기에도 영화와 연극 등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고,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노민은 외도하는 남편들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한 마디만 남겼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연합뉴스

## 백종원의 ‘냉면 랩소디’ 8월 5일 방송



KBS 1TV ‘다큐 인사이드’의 여름 특집 푸드 인문 다큐멘터리 ‘냉면 랩소디’ (사진) 2부가 8월5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냉면 랩소디’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삼겹살 랩소디’에 이은 두 번째 한식 랩소디 시리즈로, 이번에도 백종원 대표가 진행자로 나섰다.

백종원 대표는 전국의 냉면을 찾아 나서면서 냉면에 얹힌 역사와 의미를 짚어 내고, 직접 새로운 냉면을 만들어 본다.

이날 방송하는 2부 ‘냉면 열정’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된 냉면의 재현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초고해상도(UHD)로 제작돼 영상미를 살린 ‘냉면 랩소디’는 앞서 29일 냉면의 역사와 전파과정을 다룬 1부 ‘냉면 시대’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와 웨이브에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모가디슈’ 개봉 첫날 12만명...코로나 속 흥행 이어갈까

### 이국적 풍광·새로운 액션 장면 극장업계 제작비 50% 지원

류승완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사진)가 개봉 첫날 12만 6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거둔 성적이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모가디슈’는 전날 하루 동안 12만6000여명(매출액 점유율 49.9%)의 관객을 모았다.

한국 영화로는 올해 최고 오프닝 성적이다. 앞서 지난달 개봉한 조우진 주연의 ‘발신제한’은 5만5000여명의 관객으로 출발했다.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는 모로코 울로케이션으로 담은 이국적 풍광 속에 새로운 액션 장면과 신파 없는 드라마를 담았다. 이날 오전 현재 실시간 예매율도 31.8%(4만8000여명)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올여름 한국 영화 대표 텐트폴인 ‘모가디슈’ 개봉을 위



해 극장업계는 총제작비의 50%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같은 날 개봉한 ‘방법:재차’와 ‘정글 크루즈’는 2만명대의 관객으로 4위와 5위로 출발했다.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쓴 드라마의 확장판 ‘방법:재차’의 2만8000여명(10.7%), 디즈니랜드 놀이기구를 영화로 옮겨온 ‘정글 크루즈’는 2만5000여명(8.1%)의 관객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울켄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벽 ☎ 062-225-4445, 010-3603-3064

###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 힐스팀힐링센터점질방

광주북구동림동33, 핸드폰기계 2층 민생통증, 요통, 오십견, 수족냉증, 수술후유증, 관절염 각종염, 산후통, 손발저림, 산후조리, 다이어트 피부미용, 아토피, 비염, 불면증, 피로회복, 생리통 ☎ 062)413-3507, 010-4630-3507

###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해미패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재테크, 신재생에너지재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첨단돌솥감자탕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희망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민맥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